

와인의 선택, KWC가 그 잣대가 된다

와인을 즐기 위해 소비자들은 나름대로 몇 가지 잣대를 활용한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도 믿음이 가는 잣대에 Korea Wine Challenge의 수상 와인이 있음을 알린다. 글 최훈 본지 발행인 사진 장영수



1. Casas del Toqui Court Rollan Extra Brut Blanc de Blancs 수입사 BK트레이딩 2. The Prisoner Wine Company Derange 수입사 신동와인 3. Delas Cotes du Rhone 수입사 레벤드매일 4. Adriano Grasso Barbera d'Asti 수입사 샤프트레이딩 5. Bogle Chardonnay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선택의 정보

값싸고 질 좋은 와인을 즐기고자 와인을 고르는 것을 이른바 와인의 선택이라 한다. 사실 병입된 와인의 맛과 질은 이미 병속에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와인을 제대로 골라 내가 만족할 만한 것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1967년 10월 프랑스에서 호텔 연수생으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와인을 만난 일이 있다. 이날 이후 공직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와인과 인연을 끊지 않고 이어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와인의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선택한 와인의 맛이 시원찮아 쓸쓸한 마음을 어찌 표출해 낼 것인지 명할 때가 있다.

사실, 와인 선택의 기본 정보는 병에 부착된 레이블에서 얻는다. 포도의 품종을 비롯해 생산지, 양조의 시기 등에 관해 몇 가지 유의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 그러하다. 실제 와인의 맛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포도의 종, 산지의 토양, 일조량, 강우량, 포도밭의 입지(형국), 바람,

비, 기상 여건 등등, 이른바 페루아가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와인의 맛과 질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한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비록 레이블에서 매우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포도의 생장과 질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인 페루아의 정보는 얻을 수 없다. 별도로 시간을 두고서 서칭하게 되면 알 수 있겠지만...

선택의 실제

와인을 선택하는데 쓰이는 일반적인 잣대는 대충 다음 것들이 있다.

- 포도의 품종
- 와인의 생산지(나라, 산지 등)
- 와인 생산자의 브랜드 파워
- 와인 수입상(유통 업자)의 브랜드 이미지
- 와인의 가격 수준, 외국 챌린지에서 수상 등



그러나 이러한 잣대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 사전적으로 와인의 맛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때로 다른 챌린지 또는 컴퍼티션에서 수상 여부를 알려주는 마크(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우리들은 이를 깊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 입맛에 맞추어 선택된 것이기 때문이다.

Korea Wine Challenge(약어, KWC)

2005년부터 <Wine Review>가 주관해 Korea Wine Challenge를 실시해 오고 있다. 시작은 우리나라 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와인 선택의 잣대가 없었기에 그러했다. 해서 이 챌린지(와인 컴퍼티션)가 내세운 슬로건이 “우리들 입맛에 맞는 와인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라는 것이었다.

시작 무렵에는 우리들 심사위원이 정말 와인의 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벤트의 연륜이 쌓이면서 이런 기우는 사라지고, 나라 안팎에서 KWC의 심사 결과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다. 필자도 KWC에서 수상한 와인들을 시음하곤 한다. 때로는 홀로, 때로는 직원들과 ‘wine time’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와인의 질

적 수준을 평가해 본다. 이때 아주 훌륭하다고 느낀 와인이 KWC에서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궁금해 체크해 보면 예외 없이 골드, 실버, 브론즈의 메달을 수상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산지는 익히 알려진, 이른바 명산지이나 막상 시음해 보면 와인의 맛이 신통찮을 때가 있다. 행여나 자신의 테이스팅에 문제가 있어 그러하지 알 수 없어 수상 여부를 다시 체크해 보면 놀랍게도 아예 예선 탈락의 와인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

이후 나 자신도 KWC의 심사 결과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다. 약 50~60여 명의 우리나라 최고의 와인 전문가 내지 소믈리에가 심사위원이 되어 2주간 예선, 결선을 거치면서 와인의 질을 평가한 결과 이어서 어느 경우 보다 깊은 신뢰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우리나라 와인 소비자 내지 마나이가 와인 선택의 어려움을 털고서 KWC의 스티커를 믿고 와인을 선택해 주기를 권한다. 실패의 리스크를 줄이고 가장 확실한 질 좋은 와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차 이야기하지만 KWC가 이제는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와인 선택의 잣대임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